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꿈의 노트’에 써보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 초청 한라일보·JDC 교육특강 ‘꿈꾸는 대로’가 가진 힘 “아깝잖은 칭찬 더해지니 뮤지컬대상 주연상까지”



지난 16일 제주웰컴센터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홍지민. 이상규기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꿈의 노트’에 적어보세요.”

“플라이 투 더 문”을 부르며 등장한 뮤지컬 배우 홍지민은 ‘꿈’을 말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는 동안 그 꿈을 붙잡고 있었기에 오늘날 정상까지 오른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 강당.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동주최한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வ는 교육특강’ 열여덟 번째 강사로 초청된 그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열정적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강 주제인 ‘홍지민과 함께 떠나는 꿈과 음악여행’처럼 그는 간단히 귀에 익은 노래를 들려주며 꿈의 세계로 청소년, 학부모 등 청중을 이끌었다.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분의 제안으로 10년 전부터 ‘꿈의 노트’를 작성했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처럼 ‘꿈’을 적어 나가니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는 놀라운 힘을 발견했어요.”

막연한 바람보다는 구체적으로 ‘꿈의 노트’를 쓰라고 조언한 그는 가면을 쓰고 노래 경연을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왕’을 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재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 뮤지컬 넘버만이 아니라 국악 협연 레퍼토리도 갖고 싶다는 ‘꿈의 노트’를 적은 일이 있고 ‘불청객’처럼 찾아든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도 그것

을 차레차레 현실로 만들었던 경험을 나눴다.

‘칭찬’은 그를 일시켜 세운 가장 큰 동력이었다. 리허설을 참관했던 ‘드림걸즈’ 작곡가인 웬디 크리거가 그에게 “나의 노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소화하는 배우는 처음”이라고 극찬했던 일이다. 한 국에서 초연되는 ‘드림걸즈’ 에피 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심 불안해 도망치고 싶었던 홍지민은 그 때부터 신이 나서 지친 줄 모르고 연습과 공연을 이어갔고 2009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한국 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까지 안았다. 크리거는 나중에 그에게 직접 쓴 곡을 건넸고 홍지민은 이를 담은 앨범도 내놓았다.

‘뮤지컬 스타’로 불리는 그는 지금도 ‘오늘 딱 하루만’이란 다짐을 실천하며 산다. 작은 길이지만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하다보면 그것이 실현되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진짜 팬’ 1000명이 관람하는 콘서트를 열고 싶은 꿈을 밝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을 즐기다보면 꿈이 어느덧 곁에 와 있을 거란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섬이 지닌 아픔 넘어 평화·인권 공유 제주4·3평화재단, 대만 2·28기념관서 4·3전

제주와 대만 두 섬이 지닌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전시가 대만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과 대만2·28기념관(관장 소명치)이 지난 15일 타이베이 2·28기념관에서 막을 올린 ‘2·28국제인권전-제주4·3’ 전이다.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4·3의 시공간적 배경, 3·1발포사건, 무장봉기, 초도화대전, 피해실태, 진상규명 등 70여년 4·3의 지난한 역사를 영상, 사진, 작가작품으로 담아냈다. 대만 현지 관객들이 4·3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동백꽃 스티커를 붙이는 코너도 봤다. 개막 공연에서는 산오락회(최상돈·조애란·김강곤)가 4·3을 그려낸 ‘애기동백의 노래’는 물론 228사건을 알리기 위해 문학적 저항을 했던 이민용 시인의 ‘우리, 나무를 심자’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임원들이 대만228유족회 임원들에게 동백꽃을 달아주고 현안을 공유하며 두 단체간 우호·협력도 다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4·3의 비극을 소설로 풀어내는 현기영 소설가가 참여하는 좌담회가 마련됐다. 현기영 소설가는 “대만과 제주의 비극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시 그 역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며 “2·28과 4·3의 진실과 기억을 지키면서 어른을 끌어들이는 ‘기억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상의 후쿠오카현에 교류단 파견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민간 경제교류 시찰단은 지난 15일 후쿠오카상공회의소(회장 후지나가 켄이치)를 방문해 회장단 및 임원진 연석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교류가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라동주민자치위 유적지 힐링투어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완길)는 지난 11일 주민자치위 특화프로그램 ‘오라동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스토리 힐링투어’를 진행하고 오라동 유적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농산물-서문시장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과 제주서문공설시장상인회는 지난 13일 서문시장 다목적실에서 원산지 자율표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귀포시부녀회 어르신 수의 전달



서귀포시세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는 지난 15일 서귀포농협 웨딩홀에서 지역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랑의 수의 전달식을 가졌다.

국립제주박물관-제주문화예술재단 협약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지난 14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태)과 박물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청년문화예술 지원 정보교류와 홍보,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교육노조 8대 위원장에 류지훈씨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주교육노조)은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제8대 위원장에 류지훈 후보 당선 소식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에는 등반출마한 고창성 후보가 당선됐다.

한라게시판

A large section containing numerous small advertisements for marriages and funerals, including names, dates, and locations. Each ad is presented in a decorative box with a '花 축' (Floral Greeting) header.

화축란 유료입니다 문의 750-2828 / FAX 752-7448 732-5552 / FAX 732-5559